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읽기는 듣기·말하기와 달리 영·유아가 글자를 깨치고 나서야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에서는 그 전에도 읽기 발달이 진행된다고 본다. 이 연구들에서는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 단계를 위계화한다. 대개 ‘읽기 준비’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이후의 단계를 ‘글자를 익히고 소리 내어 읽기’,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 ‘학습 목적으로 읽기’,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기’의 순으로 나눈다.

여기서 읽기 준비 단계는 읽기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영·유아는 글자를 깨치지 못하더라도 글자의 형태에 익숙해지며, 글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도 어렴풋이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글자가 뜻이 있고 음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의미한 경험을 한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 읽기 준비 단계에서 영·유아의 읽기 발달은 타인의 읽기 행위를 관찰하고 글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진행된다. 영·유아는 타인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며 글의 시작 부분, 글자를 읽는 방향, 책장을 넘기는 방식 등을 알게 된다. 읽어 주는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기억해 모방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의 각 영역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는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발달한다. 글자를 모르는 영·유아가 책을 넘기며 중얼거리고 책 읽는 흉내를 내는 것,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따라 말하는 것, 들은 단어나 구절을 사용해 문장을 지어 말하는 것, 읽어 주는 것을 들으며 그림이나 글자 형태로 끄적 거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생활 속에서, 책을 자주 읽어 주며 생각을 묻는 등 의사소통의 각 영역이 같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지도가 읽기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읽기 준비 단계에서의 경험은 이후의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는 단계는 읽기 발달의 마지막 단계이다.
 - ② 영·유아의 의사소통 각 영역은 상호 간의 작용 없이 발달한다.
 - ③ 영·유아는 글자와 소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게 된다.
 - ④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의 단계를 나눈다.
 - ⑤ 글자를 습득하고 소리 내어 읽는 단계는 학습을 목적으로 읽는 단계에 선행한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이 책을 읽어 줄 때 들었던 구절을 사용하여 말하는 행동이 관찰된다.
- ② 책에서 글이 시작되는 부분을 찾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글자를 보는 행위가 관찰된다.
- ③ 글에 나타난 여러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소리 내어 글자를 읽는 행동이 관찰된다.
- ④ 책 읽어 주는 것을 들으며 그림이나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내는 행위가 관찰된다.
- ⑤ 책을 볼 때 부모가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읽어 준 행동을 기억하여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된다.

3.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읽기 지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한다. 그 전에는 읽기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듣기·말하기와 달리 읽기 발달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듣기와 말하기를 먼저 가르친 후 읽기, 쓰기의 순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A]와 달리 <보기>는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읽기 지도를 강조하는군.
- ② [A]와 달리 <보기>는 글자를 깨치기 전의 경험이 읽기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군.
- ③ [A]와 달리 <보기>는 글자 읽기의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읽기 발달이 시작된다고 보는군.
- ④ [A]와 <보기>는 모두 읽기 이후에 쓰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는군.
- ⑤ [A]와 <보기>는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근본적 규범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최상위 법규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법적 안정성이 중시된다. 그러나 변화하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규범력을 유지하거나, 질서 정연하고도 집약적으로 헌법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이 개정되기도 한다.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의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추가함으로써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기존의 헌법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헌법의 토대가 되어 있는 헌법 제정 권력까지도 배제하는 헌법의 파기와는 **㉠** 다르다.

헌법의 개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른데, 이는 대체로 개정 무한계설과 개정 한계설로 **㉡** 나뉜다. **㉠** 개정 무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밟으면 어떠한 조항이나 사항이더라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 무한계설에서는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의 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 개정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의 구별을 부인하여 헌법 최고의 법적 권력은 헌법 개정 권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장래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 밝힌다. 그러나 개정 무한계설은 법 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는 외면한 채 헌법 개정에 있어서 형식적 합법성만을 절대시한다고 비판받는다.

㉡ 개정 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 따를지라도 특정한 조항이나 사항은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한계설에서는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을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의 소재(所在)를 변경하거나 헌법 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 가치 질서를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정자가 내린 근본적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개정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헌법 위에 존재하는 자연법*의 원리에 **㉤** 어긋나는 헌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 주권 원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은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자연법 : 인간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보편타당한 법.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헌법은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 ②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특정 조항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다.
- ③ 개정 한계설에 따르면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은 구별된다.
- ④ 개정 한계설은 법 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⑤ 개정 무한계설은 현재의 헌법 규범이 장래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

5. ㉠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 국가의 헌법 제정 권력은 귀족들이었으며 A 국가의 헌법에는 국가 형태로 군주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민혁명이 일어나, 군주제가 붕괴되고 국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공포했다. 이 새로운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를 따르고 있다.

- ① 기존 헌법의 가치 질서를 유지하므로 헌법의 파기가 발생한 것이다.
- ② 헌법 제정 권력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헌법의 개정이 발생한 것이다.
- ③ 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으므로 헌법의 개정이 발생한 것이다.
- ④ 군주제였던 국가 형태가 민주제로 바뀌었으므로 헌법의 개정이 발생한 것이다.
- ⑤ 기존의 헌법이 소멸되고 헌법 제정 권력이 바뀌었으므로 헌법의 파기가 발생한 것이다.

6. <보기>를 통해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세기 근대법 체계가 정비되면서 법률 실증주의가 대두되었다.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국가 기관에 의해 실제로 제정된 실정법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법의 이론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오직 법 자체의 형식 논리만을 중시한다. 이렇게 형식적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태도는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연법 사상과 대립된다.

- ① 형식적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이론이나 해석에서는 ㉠을 지지하겠군.
- ② 실제로 제정된 실정법만이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을 인정하겠군.
- ③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법 자체의 형식 논리를 중요시하므로 ㉠을 주장하겠군.
- ④ 헌법 위에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학자들은 자연법 사상을 ㉡의 근거로 삼겠군.
- ⑤ 실정법을 초월하는 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의 학자들은 ㉡에 수긍하겠군.

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상등하다
- ② ㉡ : 분포된다
- ③ ㉢ : 피력한다
- ④ ㉣ : 승계할지라도
- ⑤ ㉤ : 소급되는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컴퓨터는 0 또는 1로 표시되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한다.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비트 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를 워드라고 한다. 예를 들어 64비트의 컴퓨터는 64개의 비트를 1워드로 처리한다.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4비트 중 가장 왼쪽 자리인 최상위 비트는 0으로 표시하여 양수를 나타내고 나머지 3개의 비트로 정수의 절댓값을 나타낸다. 0111의 경우 가장 왼쪽 자리인 '0'은 양수를 표시하고 나머지 '111'은 정수의 절댓값 7을 이진수로 나타낸 것으로, +7을 표현하게 된다. 이때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데이터 비트라고 한다.

그런데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한다. -3을 표현한다면 -3의 절댓값 3을 이진수로 나타낸 011에 최상위 비트 1을 덧붙이면 된다. 이러한 음수 표현 방식을 ㉠ '부호화 절댓값'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호화 절댓값은 연산이 부정확하다. 예를 들어 7-3을 계산한다면 7+(-3)인 0111+1011로 표현된다. 컴퓨터에서는 0과 1만 사용하기 때문에 1에 1을 더하면 바로 윗자리 숫자가 올라가 10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0111에 1011을 더하면 10010이 된다. 10010은 4비트 컴퓨터가 처리하는 1워드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오버플로라 한다. 부호화 절댓값에서는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기 때문에 계산값이 부정확하다. 또한 0000 또는 1000이 0을 나타내어 표현의 일관성과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 ㉡ '1의 보수법'이 있다. 보수란 보충을 해 주는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수 a에 대한 n의 보수는 a와의 합이 n이 되는 수이다. 예를 들어 1에 대한 1의 보수는 0이고, 0에 대한 1의 보수는 1이다. 1의 보수법으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하고 데이터 비트는 각 자리의 수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1의 보수는 각 자리의 수에 대해 합이 1이 되는 수이므로, -3을 1의 보수법으로 표현한다면 -3의 절댓값인 3을 이진수로 나타낸 011에 대한 1의 보수 100이 데이터 비트가 된다. 여기에 음수를 표시하는 최상위 비트 1을 덧붙여 1100이 된다. 1의 보수법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처리 규칙을 활용하여 계산값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산값이 0000 또는 1111인 경우 0을 나타내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음수 표현 방식이 '2의 보수법'이다. 2의 보수법은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 데이터 비트에 1을 더하는 방식이다. 2의 보수법으로 -3을 표현한다면, -3의 절댓값인 3을 이진수로 나타낸 011에 대한 1의 보수 100을 구한 다음, 1을 더한 101에 음수를 표시하는 최상위 비트 1을 덧붙여 1101이 된다.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를 가정하여 7-3을 2의 보수법으로 계산해 보자.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1의 보수법이나 2의 보수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7-3은 7+(-3)이므로 2의 보수 법으로 0111+1101이 된다. 이를 연산하면 10100이 되어 4비트를 초과하게 된다. 2의 보수법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초과된 비트를 버려야 하므

로 그 결과 0100이 나온다.

- * 비트(bit) :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 * 이진수 : 이진법으로 나타낸 수. 십진수 0, 1, 2, 3, 4, 5, 6, 7은 이진수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로 나타냄.

8.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인 경우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 ② 부호화 절댓값에서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컴퓨터에서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④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
- ⑤ 부호화 절댓값의 연산이 부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

9.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과 ㉡을 사용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에 비해 ㉡에서 정수의 절댓값을 나타내는 비트의 개수가 많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 최상위 비트가 1이다.
- ④ ㉡에 비해 ㉠에서의 계산값이 더 정확할 것이다.
- ⑤ ㉠으로 표현한 음의 정수를 ㉡으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데이터 비트가 나올 것이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1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4-7을 계산한다.

(나)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2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3-4를 계산한다.

- ① (가)의 경우 0100에 1000을 더하면 1100이 되어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겠군.
- ②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 모두 계산 과정에서 1의 보수가 활용되겠군.
- ③ (가)의 경우 4의 데이터 비트는 100, (나)의 경우 -4의 데이터 비트는 100으로 같게 나타나겠군.
- ④ (나)의 경우 오버플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된 비트는 버려야 하겠군.
- ⑤ (나)의 경우 -4의 절댓값을 이진수로 나타낸 100에 1을 더하면 -4에 대한 2의 보수가 되겠군.

11. ㉠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의 보수법으로 표현된 0000이 2의 보수법에서는 0001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 ② 1의 보수법으로 표현된 1111이 2의 보수법에서는 0000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 ③ 부호화 절댓값으로 표현된 0000이 2의 보수법에서는 0001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 ④ 부호화 절댓값으로 표현된 1000이 2의 보수법에서는 1111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 ⑤ 부호화 절댓값으로 표현된 1111이 2의 보수법에서는 0000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철학에서는 상상력을 무엇으로 여기며,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상상력을 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한 흄은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 바라본 기존의 관점과 달리 정신적이며 후천적인 기능으로 규정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흄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인 '지각'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한다. 인상은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이고, 관념은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겨나는 이미지이다. 여기서 흄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이라 보았다. 상상력은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능력인 것이다.

흄은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으로 상상력과 함께 '기억'을 제시한다. 기억과 상상력의 차이는 인상과 관념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생생함의 정도에서 비롯되는데, 기억이 상상력보다 인상을 더욱 생생하게 재생한다. 그래서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보다 훨씬 생생하고, 강렬하다. 또한 기억이 최초 인상들을 받아들일 때와 동일한 순서로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상상력은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생이 이루어진다.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받아들인 특정한 인상에 대한 관념이지만,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각각의 인상들이 생긴 시간의 순서나 각 인상들의 공간적 배열까지도 원래 받아들일 때의 그것과는 다르게 재생된 관념인 것이다. 즉, 상상력은 기억과 달리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인상들로부터 만들어진 관념들을 자율적으로 재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흄은 이러한 상상력의 자율성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본다. '관념 연합의 원리', 즉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습득된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을 제시하면서, 상상력은 이러한 연합의 원리에 의해 관념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라 설명한다. 상상력이 관념들을 결합시킬 때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관념들끼리, 시공간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인과

관계에 있는 관념들끼리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흄에게 임의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한 환상에 불과하다.

또한 흄은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동일성이 상상력에 의하여 확보된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는 하늘이 밤사이에 소멸했다가 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성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칸트는 흄과 달리 상상력을 선형적인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 능력은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이라는 4가지로 구분된다. '감성'은 대상에 의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을 오감(五感)을 통해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지성'은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주어진 상황에 대해 판단을 **㉠ 내리는** 능력을 말한다. '상상력'은 서로 이질적인 능력인 감성과 지성을 연결하는 능력으로, 감성의 내용을 지성에, 지성의 내용을 감성에 전달한다. 상상력이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할 때 결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상상력에 의해 지성의 내용이 감성으로 전달될 때 도식화가 일어난다. '이성'은 추론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감성, 상상력, 지성에 의해 축적된 수많은 지식들을 영혼이나 우주 또는 신이라는 이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화한다. 이처럼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이어지는지 그 원리를 분석하면서 감성과 지성의 매개자인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상상력이 없다면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칸트는 상상력을 결합과 도식화의 측면에서 ㉡ '재생적 상상력'과 ㉢ '생산적 상상력'으로 구분한다. 재생적 상상력은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능력으로, 먼저 무질서하고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본 다음 훑어본 것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종합'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다른 시간들에서 경험한 것을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결합하게 한다. 가령 내가 사과를 보았을 때 오감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보고 모아서 그 사과를 하나의 상(像)으로 결합해 내는 경우는 재생적 상상력에 의해서 종합이 일어난 것이다.

생산적 상상력은 도식(Schema)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도식은 감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험 이전에 있으면서 그 경험을 인식하게 하는 선형적 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도식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나아가 생산적 상상력은 도식을 창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응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처럼 칸트는 흄이 경험적인 차원에서 연구하였던 상상력을 선형적인 차원에서 탐구함으로써 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1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바라보았던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 개념을 다른 개념과 비교하면서 두 개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 개념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개념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 개념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의 형성 배경과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다.

13. (가)에서 알 수 있는 흠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이 지닌 항상성 때문이다.
- ② 상상력이 만들어 낸 인상과 관념들은 자율적인 결합과 분리가 가능하다.
- ③ 연합의 원리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하다.
- ④ 상상력보다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이 더욱 생생하다.
- ⑤ 상상력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이다.

14. (나)에 따라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이스크림을 한입 먹었을 때 차갑다고 느끼는 것은 감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물리학, 천문학 분야의 수많은 지식들을 우주라는 이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화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어느 날 밤 갑자기 지붕을 내려치는 듯한 빗소리가 들렸을 때, 태풍이 가까이 와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꿀, 감, 포도를 바라보며 받아들인 다양한 감각들을 지성으로 전달하는 것은 상상력을 통해, 그 후 과일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색, 크기, 모양 등의 다양한 감각들을 느끼는 것은 감성을 통해, 그 장미꽃이 빨간색이라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감각과 별개로 작용하는 능력이다.
- ② ㉠과 ㉡은 모두 경험의 수용과 인식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 ③ ㉠과 달리 ㉡은 감성과 이성을 이어 주는 매개적 기능을 한다.
- ④ ㉡과 달리 ㉠은 다양한 감각들을 결합하기 전에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⑤ ㉡과 달리 ㉠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선형적 형식을 만드는 능력이다.

16.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철학자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이미지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기에 이미지를 재생해서 보존하는 상상력은 매우 중요하다.
- ㉡ 상상력은 인간의 정신 능력에서 놀라운 창조성을 지닌 능력으로, 인간이 이룩한 문화는 모두 상상력의 산물이다.
- ㉢ 상상력은 사물의 닳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다. 감각은 사물의 그림자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 ㉣ 인간의 모든 경험은 감각이 대상과 접촉함으로써 획득되고, 상상력은 인간의 모든 사고의 연계를 가능케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상력의 기능을 배제한 인간의 인식 과정은 있을 수 없다.

- ① 흠은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이해한다는 ㉠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 ② 칸트는 상상력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파악한 ㉡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 ③ 칸트는 상상력을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라 판단한 ㉢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 ④ 흠은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는 ㉣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 ⑤ 흠과 칸트는 모두 인간의 인식 과정에서 상상력의 역할을 필수적이라고 파악한 ㉣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17.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오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리다.
- ② 요즘은 물가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
- ③ 게시판에서 옥설이 들어 있는 글을 내렸다.
- ④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곧장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 ⑤ 동치미 국물을 마시자 체중이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관찰사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버도 아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법이니, 나 역시 네 마음을 막을 도리가 없다. 내가 보니 자란과 내가 사랑하는 정이 깊어 헤어지기 어려울 듯하구나. 현대 너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터라, 지금 만일 자란을 데리고 간다면 앞으로 혼인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남자가 첩 하나 두는 거야 세상에 흔한 일이니, 네가 자란을 사랑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면 비록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감당해야겠지. 네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겠으니, 숨기지 말고 네 속마음을 말해 보거라.”

도령이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께선 제가 그깟 기녀 하나와 떨어진다고 해서 상사병이라도 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때 제가 변화한 데 눈을 주긴 했지만, 지금 그 아이를 버리고 서울로 가면 헌신짝 여기듯이 할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아이에게 연연하여 잊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리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일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관찰사 부부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진정 대장부구나.” 이별의 날이 왔다. 자란은 눈물을 쏟고 목메어 울며 도령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했다. 하지만 도령은 조금도 연연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도령의 의연한 모습에 감탄했다.

그러나 실은 도령이 자란과 오륙 년을 함께 지내며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까닭에 이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호쾌한 말을 내뱉으며 이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다.

관찰사는 임무를 마치고 대사헌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왔다. 도령은 부모를 따라 ㉡서울로 돌아온 뒤 차츰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만 감히 내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감시가 다가왔다. 도령은 부친의 명을 받아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 시험 준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벼들은 모두 잠들었는데, 도령 혼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나와 뜰 앞을 서성였다. 때는 바야흐로 한겨울이라 쌓인 눈 위로 달빛이 환했고, 깊은 산 적막한 밤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도령은 달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란 생각이 들며 마음이 서글퍼졌다. 한 번만이라도 자란의 얼굴을 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되었다.

마침내 도령은 한밤중에 절을 뛰쳐나와 곧장 ㉣평양으로 향했다. 털모자에 쪽빛 비단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은 채 길을 걷노라니 10여 리도 채 못 가서 발병이 나 걸을 수가 없었다. 시골 농가를 찾아가 신고 있던 가죽신을 내주고는 짚신을 얻어 신었고, 털모자를 벗어 던지고 그 대신 해지고 테두리가 뜯어진 병거지를 얻어 머리에 썼다. 길을 가며 밥을 빌어먹다 보니 늘 굶주릴 때가 많았고, 여관 한 귀퉁이에 빌붙어 잠을 자다 보니 밤새도록 추위에 몸이 얼었다.

[중략 줄거리] 평양에 도착한 도령은 자란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기녀인 자란은 이미 새로 부임한 관찰사 아들의 총애를 받고 있다. 도령은 자란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기거하는 곳에서 눈을 쓰는 인부로 일을 하게 되고, 둘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된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자란의 어머니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보따리를 이고 지고 몰래 달아났다. 양덕과 맹산 사이의 ㉤깊은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는 시골 촌가에 몸을 의탁했다.

처음에는 그 집 머슴살이를 했는데, 도령은 천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자란이 베 짜기와 바느질을 잘했으므로 그 덕분에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얼마 뒤에는 마을에 몇 칸짜리 초가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자란이 베 짜기와 바느질을 부지런히 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았고, 또 지니고 온 옷가지와 패물을 팔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니 살림이 아주 궁핍하지는 않았다. 자란은 또 이웃과도 잘 지내며 환심을 샀기에, 사방 이웃들이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도움을 주었으므로 마침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예전에 도령이 절을 뛰쳐나왔을 때의 일이다. 절에서 함께 공부하던 도령의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 도령이 보이지 않자 깜짝 놀랐다. 친구들은 즉시 승려들과 함께 온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도령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도령의 집에 소식이 전해지자 온 집안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많은 하인들을 풀어 절 부근 수십 리를 며칠 동안 샅샅이 뒤져 보았지만 역시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요사한 여우에게 홀려서 죽었거나 호랑이 밥이 된 게 틀림없다.”

결국 도령의 상을 치르고 빈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신임 관찰사의 아들은 자란이 달아난 뒤 서운으로 하여금 자란의 어머니와 친척을 모두 가두고 자란의 행방을 쫓게 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 종적을 알 수 없자 포기하고 말았다.

자란은 도령과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어느 날 도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재상 가문의 외아들이건만 한낱 기생에게 빠져 부모를 버리고 달아나 외진 산골에 숨어 살며 집에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을 것이며 이보다 나쁜 행실은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늙어 죽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얼굴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당신은 앞으로 어찌할 작정인가요?”

도령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나도 그게 걱정이지만,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자란이 말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런대로 과거의 허물을 덮는 동시에 새로운 공을 이룰 수 있어, 위로는 부모님을 다시 모실 수 있고 아래로는 세상에 홀로 나설 수 있는 길인데, 당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령이 물었다.

“대체 어떤 방법이요?”

자란이 말했다.
 “오직 과거에 급제해서 이름을 떨치는 길 한 가지뿐이어요.
 더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도령이 몹시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좋은 계책이오.”
 - 임방, 「눈을 쓸며 옥소신을 엿보다」 -

18.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이 겪은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인물이 처한 상황을 외양 묘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전기적 요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이야기의 전개 도중 그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19. ㉠~㉣은 윗글의 ‘도령’이 머무른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으로 이동한 이유는 부친이 ㉠에서의 임무를 마쳤기 때문이다.
- ② ㉡에서 ㉢으로 이동한 것은 ㉢의 인물들이 옥에 갇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③ ㉢에서 ㉣로 향한 것을 ㉢에 함께 있었던 인물들은 알지 못했다.
- ④ ㉢에서 ㉣로 향한 것은 과거 ㉠에서 헤어졌던 인물이 보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 ⑤ ㉣에서 ㉢으로 이동한 것은 ㉣에서 만난 인물과 함께 살기 위해서이다.

2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신분이 다른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애정 소설이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효나 입신양명과 같은 유교적 가치와, 신분 질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하지만 주인공들이 인간의 본질적 욕망인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에 서는 이러한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사랑을 성취한 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① 도령과 자란이 이별하는 장면을 통해, 신분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도령이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 자란을 찾아가는 장면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자란과 도령이 도망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는 장면을 통해,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도령이 자란의 문제 제기에 눈물을 흘리며 동의하는 장면을 통해, 주인공들이 효를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자란이 과거 급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장면을 통해, 유교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21. [A]와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청자를 안심시키고 있고, [B]에서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환기하며 청자의 생각을 묻고 있다.
- ② [A]에서는 청자의 장점을 언급하며 청자의 성품을 칭송하고 있고, [B]에서는 청자의 잘못을 지적하며 청자의 언행을 질책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청자에게 질문을 반복하며 예견되는 상황을 장담하고 있고, [B]에서는 청자에게 명령을 거듭하며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청자의 의견에 반박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고, [B]에서는 청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청자의 삶의 방식을 칭찬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근거로 들며 청자를 설득하고 있고, [B]에서는 청자의 신분적 위세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있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별
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
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앓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
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
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
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견훤 낚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림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 정밀 : 고요하고 편안함.

(나)

이렇게 되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A]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뉘두는

[B]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C]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 도반 : 함께 도를 닦는 벗.

(다)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잊는 것은 병이 아니
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

은 아니다.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잊어도 좋을 것
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의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픈
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집
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잊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잊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잊지 못한다. 의롭지 않
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
을 얻으려는 마음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
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잊
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
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
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
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
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별을 내리기도 하고, 남
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
을 내린다.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
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
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
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

- 유한준, 「잊음을 논함」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⑤ ‘달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24.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 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잇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② ㉡ :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 ③ ㉢ : 잇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④ ㉣ : 잇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⑤ ㉤ : 잇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하여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2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 ② ㉦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③ ㉦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 ④ ㉦과 ㉧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 ⑤ ㉦과 ㉧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 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②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③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잇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④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잇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잇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⑤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잇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명식의 밤 외출은 날이 갈수록 잦아 갔다. 2층 서재로 숨어들어가 그의 가면 뒤에서 이상스런 휴식에 젖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하여 그는 사무실에서 묻어 온 피곤기를 가면 뒤에서 말끔히 씻어낸 다음 지연을 찾아 ㉠ 밤늦은 2층 계단을 내려오곤 했다.

[A] 명식은 분명 그 가면 뒤에서야 비로소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듯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변신의 연극기 같은 것에서 오는, 그 가면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새삼스럽게 자기를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어쨌든, 이제 지연이 명식을 속속들이 다 만나는 것은 그가 그 밤 외출에서 이상스런 방법으로 피로를 씻고 새 힘을 얻어 돌아오는 날뿐이었다.

이윽고 지연에게도 한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명식을 만나고 싶은 밤의 소망은 반드시 그의 가면을 연상시켜 주곤 했다. 지연은 명식의 가면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식의 가면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명식의 가면이 어느새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어쩌면 썬인지 그녀는 명식의 동기까지를 포함하여 그러는 자신을 스스로 수궁해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명식에게서도 혹시 그런 기미가 엿보이고 있었기 때문일까. ㉡ 지연은 이제 오히려 명식의 맨얼굴 쪽에서 어떤 불편스런 가면이 느껴지고 있을 지 경이였다. 그녀에게는 명식이 맨얼굴로 대문을 들어설 때의 표정이야말로 영락없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뻗뻗하고 변화 없고 그리고 어떤 뻘뻘스런 피곤기 같은 것이 온통 그를 가려 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러나 지연은 그토록 익숙해진 명식의 가면을 아직도 똑똑히 본 일이 없었다.

그 첫날 한 번밖엔 명식이 자기의 가면 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그것이 진짜 자기의 얼굴이나 되는 양 익숙해져 버린 가면으로 의기양양 밤 외출에서 돌아오곤 한 명식을 다시 본 일이 없었다.

지연은 보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그 명식의 얼굴을 자신 속에다 깊이 지녀 버리고 있었다. 문득문득 그것을 만나고 싶은 밤이 많았다. 이날도 지연은 그런 명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잠시 후 명식이 밤 외출에서 돌아온다.

한참을 기다렸다. 역시 기척이 없다. 이상한 일이었다.

㉢ 오늘 밤에도 또?

지연은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문득 어떤 별난 밤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도 명식은 썩 오랜만의 밤 외출에서 돌아와 소리 없이 2층으로 올라간 다음이었다. 지연은 물론 그녀의 침대 속에서 명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계단을 내려오는 기척이 없었다. 지연은 불쭉 상서롭지 못한

예감이 들었다. 술이 너무 지나쳤나 싶기도 했고, 그런 일이 워낙 처음이라 다른 심상찮은 변고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했다. 그녀는 기다리다 못해 결국 자기가 먼저 침대를 내려오고 말았다. 여자가 먼저 남편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가 여간 쑥스럽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녀는 명식을 살피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루에서 잠깐 발길을 망설이던 그녀는 ㉣ 가만가만 2층 계단을 올라갔다.

㉤ 지연이 명식의 방문 앞까지 다가갔을 때 방안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판판이었다.

“좀 들어오지그래.”

기다리고 있거나 했었던 듯 문을 열기도 전에 명식의 소리가 먼저 흘러나왔다. 술이 취해 있기는커녕 너무도 정연하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지연은 쑥스러움도 잊고 끌리듯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명식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근처의 어둠 속에 조용히 파묻혀 있었다.

“앉지 않구.”

어둠 속이라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왔다.

“오늘 밤은 여기서 좀 이렇게 지내다 가.”

어떤 분명한 의미가 담긴 말이였다. 지연은 감히 명식의 걸음으로는 갈 수가 없었다. 공연히 그가 두려웠다. 변장을 하고 있을 그의 얼굴을 만나 버리기가 두려웠다. 그녀는 명식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등 없는 등글의자 위로 몸을 주저앉혔다. 그러나 지연은 그러고 앉아서도 명식의 어떤 분명한 얼굴을 보고 있었다.

[명식은 아직 변장을 풀지 않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가 너 [B] 무 잔잔했다. 어딘가 한숨 같은 것이 묻어 있는 잔잔한 음성이였다.

지연은 명식의 그 음성으로 그가 지금 자기는 보지도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내보낸 채, 그녀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깊은 갈망에 젖고 있다는 것을 어슴푸레 느낄 수 있었다.

- 이렇게 불을 끄고 앉아 있으니 밤이 좋군. ㉥ 대낮은 얼굴이 너무 따가워서…… 누구나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사람들이 얼굴 가득히 그 엄청난 대낮의 햇빛을 스스로 없이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잘 단련이 되고 있는 건 다행한 일이지.

- 하지만 그건 다행스럽다고만은 할 수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가면을 든든하게 단련시켜 가고 있거든.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

- 가면이 우는 걸 보았을까.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가면의 눈물은 속으로만 흐르게 마련이거든.

명식은 역시 취기가 좀 숨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떠껍떠껍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앞뒤가 닿는 소리만 추려 보면 대강 그런 식이였다. ㉦ 지연이 보아 온 대로였다. 대낮을 다니는 맨얼굴에서 가면을 느끼는 대신, 가발과 콧수염으로 변장을 하고 있는 당장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기미였다. 그리고, 그래서 명식

은 그러한 변장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고뇌를 가장 정직하게
안을 수 있는 듯한 태도였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앉아서
어둠에 싸인 명식의 희미한 모습만 더듬고 있었다. 그러다가
방을 나오고 말았다.

- 이청준, 「가면의 꿈」 -

2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 자신이 보고 들은 사건을 주관적 시각에서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 ② [A]는 인물의 독백적 발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생생하게 제시한다.
- ③ [B]는 사건을 작중 상황 안에서 목격하는 인물과 그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서로 다르다.
- ④ [B]는 작중 상황 안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여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 ⑤ [B]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작중 상황 밖에서 전달하다가 작중 상황 안으로 이동하여 전달한다.

29.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귀가할 때 다른 가면을 지어내는 ‘명식’에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
- ② ㉡: 가면을 쓴 ‘명식’과의 대화가 누차 반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명식’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 타인들의 시선 때문에 낮에도 변장을 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명식’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연’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0. ㉠과 ㉡에 제시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아래층 인물이 위층 인물을 전과 달리 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 ② ㉠은 위층 인물이 자신의 가면을 보여 주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 ③ ㉠은 위층 인물이 일상의 고단함을 탈피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 ④ ㉡은 아래층 인물의 내적 욕망과 행동의 괴리가 일어나게 한다.
- ⑤ ㉡은 아래층 인물이 부부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설 속 인물의 변신 모티프는 그가 겪는 갈등의 크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깊은 소망을 내보이는 방편일 뿐, 소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변신은 갈등의 일시적 해소 효과가 없지 않지만, 가짜 해결의 속임수이고 상상적 희망의 기호에 불과하다. 결국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참된 자아의 진실을 근거로 하여 그것에 맞서는 것뿐이다.

- 작가의 말 중에서

- ① ‘지연’이 ‘명식’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의자에 앉은 것은 ‘명식’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 ② ‘명식’의 밤 외출이 잦아지는 것은 현실 세계와의 불화로 인하여 갈등이 고조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다.
- ③ ‘명식’이 가면의 눈물은 속으로만 흐른다고 말한 것은 참된 자아를 숨긴 채 살아가는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다.
- ④ ‘명식’의 가면을 똑똑히 보지 않고도 그를 기다리는 ‘지연’의 행위는 ‘명식’의 상상적 희망을 자기화한 것이다.
- ⑤ ‘명식’이 가면을 쓴 자신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그가 일시적 속임수에 도취되었음을 의미한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헌사한 조화옹이 산천을 빚어낼 때
낙은암 깊은 골을 날 위하여 만드시니
봉우리도 빼어나고 경치도 뛰어나다
어와 주인옹이 명리(名利)에 뜻이 없어
진세(塵世)를 하직하고 산속에 깃들이니
내 생애 담백한들 내 분수이니 관계하라
농환재 맑은 창가에서 주역(周易)을 점검하니
소장진퇴(消長進退)는 성인의 밝은 가르침이요
낙천지명(樂天知命)은 성인의 깊은 경계로다

(중략)

주육(酒肉)에 빠진 분들 부귀를 자랑 마오
여름날 더운 길의 홍진간(紅塵間)에 분주하며
겨울밤 추운 새벽에 대루원*에 서성이니
자네는 좋다하나 내 보기엔 괴롭구나
어저 내 신세를 내 이르니 자네 듣소
삼복에 날 더우면 백우선* 높이 들고
바람 부는 창가에 기대 다리 펴고 누웠으니
편안한 이 거동을 그 누가 겨룰쏘냐
동지 밤 눈 온 후에 더운 방에 이불 덮고
목침을 둔위 베고 ㉠ 해 돋도록 잠을 자니
편함도 편할시고 고단함이 있을쏘냐
삼공(三公)이 귀하다 하나 나는 아니 바꾸리라

값을 쳐 비기려면 만금인들 당할쏜가
 보리밥 맛들이니 팔진미를 부러워하며
 현 배웃 알맞으니 비단 가져 무엇 할꼬
 - 남도진, 「낙은별곡」 -

- * 소장진퇴: 세상사가 변화하는 이치를 가리키는 말.
- * 낙천지명: 천명을 깨달아 즐기면서 자연의 섭리를 따름.
- * 대루원: 이른 아침에 대궐로 들어갈 사람이 대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곳.
- * 백우선: 새의 흰 깃으로 만든 부채.

(나)

허천강* 건너편에 나날 뵈는 저 봉화(烽火)야
 차차 전하여 목멱산*에 닿았나니
 내 집이 그 아래 있으니 편한 소식 전할쏘냐 <1수>

가시울 에운* 곳에 고향 멀기 잘 하였데
 만일 가깝던들 생각이 더할러니
 차라리 바라도 못 보니 잇을 날이 있어라 <4수>

백옥 난간 들렀는 데 오색 선화 피었어라
 옛 신하 모두 모셔 일당어수* 즐기던고
 매일에 이런 꿈 꿀적이면 ㉠ 밤낮 자려 하노라 <9수>

두렷한 밝은 달이 천지에 가득하여
 밤이 낮이 되어 어두운 곳 없었는데
 어디서 떠가는 구름은 가리우려 하나니 <11수>
 - 윤양래, 「갑극만영」 -

- * 허천강: 개마고원을 지나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강.
- * 목멱산: 서울 남산의 옛 이름.
- * 가시울 에운: 가시울타리 둘러싼.
- * 일당어수: 물고기와 물이 한데 모임. 임금과 신하가 화합함을 이르는 말.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부여 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3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이, ㉡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후회가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일상을 만끽하고 있는 여유로움이, ㉡에는 바라는 바에 대한 간절함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체념이, ㉡에는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 ㉡에는 지시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에는 경험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에는 이전과 다르게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정서가 드러나 있다. (가)에서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 서의 은거를 선택한 작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변방에 유배를 간 작가가 고향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면서 임금을 달에 비유하여 연군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봉우리도 빼어나고 경치도 뛰어난’ ‘산속에 깃들’었다는 것을 통해 자연에 은거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주인옹이 명리에 뜻이 없어서’ ‘진세를 하직’했다는 것을 통해 세속적 가치에 욕심이 없어 스스로 속세를 떠난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의 <11수>에서 ‘두렷한 밝은 달’을 ‘떠가는 구름’이 가리려 한다는 것을 통해 작가가 자연물을 활용하여 임금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가)에서 ‘대루원에 서성이’는 사람에게 ‘내 신세’를 이르는 것을 통해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나)의 <1수>에서 ‘허천강 건너편’의 ‘봉화’를 보며 ‘목멱산’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작가의 현재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가)에서 ‘삼공이 귀하다하나 나는 아니 바꾸’겠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편안한 삶에 대한 작가의 만족감을, (나)의 <4수>에서 ‘가시울 에운 곳’에서 고향이 ‘가깝’다면 ‘생각이 더’했으리라는 것을 통해 고향을 떠난 작가의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